

고구려 무기(3) (高句麗 武器(3))

金 性 泰
(成均館大 講師)

- | | |
|--------|-----------|
| 1. 머리칼 | 6. 戟 |
| 2. 刀劍 | 7. 弩 |
| 3. 弓矢 | 8. 도끼 |
| 4. 鏃 | 9. 종합적 고찰 |
| 5. 矛 | 10. 맺음말 |

1. 머리칼

이 글에서는 고구려 무기(1)(2)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무기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성격들을 정리하고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은 계통, 연대, 사용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되, 이들 주제중에서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노(弩), 극(戟), 도끼등은 앞에서의 논의 방식을 피하고 각각의 무기를 둘러싸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한다.

2. 도 검(刀劍)

1) 계통

<고구려병기연구(高句麗兵器研究)>는 “집안(集安)출토 고구려의 단도(短刀)는 그 형태, 특징들이 낙양소구한묘(洛陽燒溝漢墓) 및 만성한묘(滿城漢墓)의 출토품과 동류(同類)로써 완전히 같다”고 한 후 (고구려의 철제 단도는) “중국에서 가져온 전래품이거나 아니면 중원(中原)의 도(刀)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¹⁾ 일본의 정전(町田) 장(章)도 고구려의 환도(環刀)는 대한족(對漢族)과의 전쟁과정에서 배워 제작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²⁾

1) 耿鐵華·孫仁杰·遲勇 <高句麗兵器研究> 《高句麗研究論文集》 (耿鐵華·孫仁杰 編) 延邊大學出版社, 1993, 209~201쪽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서 가장 먼저 각저총 현실 북벽의 주인공 실내생활도 중의 칼³⁾을 들 수 있다. 이 칼은 주인공 곁에 놓인 탁자위에 걸려 있는데 칼날은 검은색의 칼집 속에 꽂힌 상태이다. 이 검은 비교적 단검이면서 칼집의 형태가 고조선 전통의 세형동검을 계승하고 있음을 벽화내용으로 알 수 있다.

한편, 고구려의 도검을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위진남북조시대의 도(刀)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슷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⁴⁾

위진남북조시대의 도(刀)는 ① 손잡이끝장식이 환두(環頭) 혹은 방두(方頭)가 절대다수인 점 ② 실물자료로서 장식문대도가 출토되지 않고 있는 점 ③ 띠고리와 같은 패용(佩用)을 위한 금구(金具)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고구려의 칼은 ① 세형동검의 형태를 계승한 검의 사용 ② 소환두대도(素環頭大刀)가 널리 사용된 점 ③ 실물자료로 단도(短刀)가 많이 출토된 점 ④ 장식대도의 출토가 드문 점 ⑤ 패용부속구(佩用附屬具)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요약⁵⁾된다. 이는 고구려의 도검과 중국의 도검 사이에는 형태와 사용에서 연계성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물론 각저총의 예와 같이 세형동검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증시된다.

2)연대

무환두도(無環頭刀)와 소환두도(素環頭刀)가 적석총의 유형중에서는, 무기단적석총을 비롯하여 기단적석총, 방단계단석실묘 방단계단적석총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벽화고분에서는 인물풍속도가 그려진 무덤 들에서 실물자료를 비롯하여 사생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묘제의 편년에 맞추어 볼 때, 이런 형식의 도(刀)는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출현하여 4~5세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엽환두도(三葉環頭刀)는 장대형의 대형 방단계단적석총인 고령묘자 15호분과 다실묘계통의 벽화무덤인 마선구1호벽화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는 사실로 일단 4세기 이후에야 출현한 형식으로 판단된다.

단 문헌기록이 고구려후기에도 고구려가 보도(寶刀)를 비롯한 장식성이 강한 도(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도(刀)를 잘 다룬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일단 6세기이후에도 도(刀)를 널리 패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때 사용한 도의 형식은 현재의 자료로는 알 수 없다.

한편 검(劍)은 고구려 건국 초기에 도(刀)보다 널리 사용되었던 점을 문헌기록으로 알 수 있다. 즉 유리왕(瑠璃王)과 대무신왕(大武神王) 시기의 칼은 모두 검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해당시기에 고구려가 고조선의 세형동검을 이어 받아 단검(短劍)을 사용하였던 점을 알게 한다.

3) 사용

《고구려문화》는 “칼자루 끝에 만든 고리는 본래 거기에 길다란 천을 매서 손목에 감고 전투시에 실수하여 칼을 놓쳐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칼을 차

2) 町田 章<環刀の 系譜>《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研究論集》Ⅲ,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76, 85쪽.

3) 전주농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1)> 《문화유산》 58-5, 1958, 27~28쪽.

4) 金性泰<魏晉南北朝時代の 兵器> 《韓國上古史學報》 20輯, 韓國上古史學會, 1995.

5) 金性泰 <高句麗 武器(1) - 刀劍과 弓矢> 《文化財》 文化財管理局, 1993.

고 다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벽화내용을 보면 고구려 칼은 무사들이 휴대하고 있다가 창을 놓치거나 육박전이 벌어졌거나 적을 목 칠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시 위급한 상황에서 길다란 천을 손에 감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장을 했거나 행렬도 속의 무사들이 기다란 천이 붙어 있지 않은 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고구려 문화》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만약 실전(實戰)에서 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다란 천이 필요했다면 실전용의 칼들에 보여져야 할텐데 하나도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호위를 맡은 인물들이 들고 있는 의식용의 칼로 생각되는 칼에서 기다란 천이 확인된다. 따라서 환두에 걸쳐져 있는 긴천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막연한 추측은 다시 생각되어야 하겠다. 오히려 기다란 천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의례용의 칼에 치레거리로 달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중국에서 도(刀)의 사용은 기마전(騎馬戰)의 성행과 함께 베는 무기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서 생겨났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고구려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기마무사(騎馬武士)는 주로 장창(長槍)으로 무장하였고, 그는 주된 전투무기로서 대도(大刀)를 지니지 않았다. 단지 단도(短刀)를 휴대하여 창을 놓치거나 아니면 육박전이 벌어졌을 때, 또는 적의 목을 쳐야 할 때에만 휴대했던 칼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벽화 내용이 잘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주장은 고구려의 도가 대부분 단도(短刀)인 점으로도 잘 뒷받침된다.

고구려의 도(刀)는 휴대용과 호신용뿐만 아니라 의도(儀刀)로써도 사용되었다. 이는 감신총, 안악3호분 등의 벽화고분에서 확인되는데 조회시(朝會時)나 기타 의례적(儀禮的)인 모임에서 신분(身分)을 상징(象徵)하거나 예의(禮儀)를 갖추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벽화내용을 보면 대도(大刀)를 든 인물은 대부분이 무덤의 문지기로 그려져 있다. 이는 대도(大刀)가 호위무사의 무기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요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병들이 지니는 무기는 근접전에서 유용하고 휴대가 편리한 단병기(短兵器)인 점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가 호위용 무기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3. 궁 시(弓矢)

1) 계통

전주농은 단궁(短弓)이 고구려만의 고유한 활이라고 보지 않고 기원전 3세기부터 중국 서북지방에 있던 유목족의 국가였던 흉노족이나 스키타이족 등이 단궁(短弓)을 사용하였던 사실을 예를 들면서 고구려의 단궁(短弓)이 역시 고대 북방의 유목민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단궁(短弓)에 그 계통을 둔다고 하였다.⁶⁾

그의 주장은 박진욱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그도 고구려 활의 계통이 북방 기마민족의 단궁(短弓)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한편 그는 중국 활과 고구려 활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중국 활은 춘추전국시대까지는 긴 활을 사용했을 뿐이고, 짧은 활은 조(趙)

6) 註 3),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1)> 14-15쪽.

나라 무령왕(武靈王)때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면서 고구려활의 계통이 중국에 있다고 본 후등수일(後藤守一)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⁷⁾

그리고 《고구려문화》에서는 고구려 사람이 짧은 활을 만들어 쓰게 된 것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데서 온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⁸⁾

이렇듯 고구려 활의 계통이 북방유목민족의 단궁(短弓)에서 발전하였다고 보는 북한 학자들의 견해는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구려가 북방유목민족의 단궁(短弓)을 계승했지만 그들 독자의 활인 맥궁(狨弓)을 개발하였던 사실을 중시해야 하겠다. 또한 그 위력이 대단하여 주변나라에서 고구려를 ‘양궁(良弓), 호궁(好弓)을 생산하는 나라’라고 불렀던 점도 주목해야 하겠다.

2) 연대

고구려 활은 평양역구내에서 출토된⁹⁾ 실물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벽화 고분의 그림속에서만 확인된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 건국시기부터 3세기까지 고구려 활이 어떤 형태를 갖추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4세기 이후의 활도 시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긴시기동안 동일한 양식의 활이 줄곧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구려 활에 대한 편년체계의 확립은 현재의 자료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사용

활은 크게 보병용(步兵用), 기병용(騎兵用), 수렵용(狩獵用)으로 사용되었다. 우선 보병용으로 사용된 본보기는 안악3호분에서 확인되는데 활을 가진 궁전수(弓箭手)들은 경무장(輕武裝)을 하고 있다. 그들이 든 활은 각궁(角弓)과 같이 활의 손잡이가 약간 안으로 굽어든 반장궁(反張弓)인 듯한 단궁(短弓)으로 병사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고 화살은 화살통에 담아 차고 있다. 이 활은 좁피부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기병용 활은 통구 12호무덤(마조총)에서 오직 보여진다.¹⁰⁾ 경무장을 한 채 말을 탄 한 무사가 화살통을 메고 활에 장전을 한 채 말을 달리고 있는데, 그림속에서 당겨진 활은 ‘ㄷ’자 모양으로 만곡되어 있다. 수렵용 활은 활이 그려진 대부분의 벽화무덤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활이 수렵시에 많이 사용된 사실만을 보여줄 뿐, 활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4. 족(鏃)

1) 계통

고구려 철족(鐵鏃)은 그 수량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형식별로 나누어서 그 계통을 추측해 보겠다. 그런데 고구려 이전의 화살족(鏃)에 대한 발굴보고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고구려 철족의 계통을 살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교자료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고구려 이외지역에서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그 계통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미 그 계통 파악이 잘 이루어져 있는 착두형철족(鑿頭形鐵鏃)과 삼익형철족(三

7) 박진욱 <3국시기의 활과 화살> 《고고민속》 64-3, 1964, 7~9쪽.

8) 역사과학연구소 <무기와 무장>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86쪽.

9) 朝鮮總督府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1932, 10~13쪽.

10) 王承禮, 韓淑華 <吉林集安通溝第十二號高句麗壁畫墓> 《考古》 64-2, 1964.

翼形鐵鏃)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무경형(無莖形):기본적인 형태로 볼 때 마제석촉(磨製石鏃)의 형태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음.
- 역자형(逆刺形):이 역시 무경형철촉의 형태를 계승하여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음.
- 유연형(柳葉形):목이 짧은 단경유연형(短頸柳葉形)은 골촉(骨鏃)에서 발전한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음.
- 착두형(鑿頭形):이 착두형철촉은 동북 몽고지방에서 많이 출토되며 특히 북방 유목민족들의 활촉에서 특색을 이루는 명적의 촉신으로 결합되고 있음이 동북 연길지방에서의 출토품에서 많이 보이는 까닭에 착두형 철촉의 원류가 북방에 있다고 보는 견해¹¹⁾가 일반적임.
- 삼익형(三翼形):이 삼익형철촉은 북방계 문물에 속하는 촉으로서 시베리아, 남러시아, 몽강(蒙疆), 만주, 화북(華北) 등에 분포하고 있다는 견해¹²⁾가 일반적임. 그런데 고구려 명적(鳴鏑)은 인접한 북방민족의 청동명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고구려의 독창적인 산물이며 외국문물의 수입이나 영향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¹³⁾이 있기는 함.
- 검신형(劍身形):그 기본적인 형태가 검신(劍身)의 형태가 유사하므로 검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광엽형(廣葉形):현재의 자료로써는 그 계통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음.

2) 연대

여기서는 형식별 철촉의 사용시기를 출토 유구의 축조시기에 근거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비교적 연대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남부지방 철촉의 연대¹⁴⁾를 방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무경형:노남리 남파동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1점만이 보고되어 있다. 노남리 남파동 1호주거지는 로남리 유적 아랫문화층에 속한다. 이 문화층은 집자리의 짜임새나 출토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무경형철촉의 사용개시는 청동기시대말엽-초기철기시대초기로 일단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용시기는 이 무경형철촉의 조형(祖形)이 마제석촉에 있는 사실과 극히 소형(小型)이면서 납작한 단면을 지닌 점, 그리고 경(莖)이 없는 원시적 형태인 점 등으로 미루어 큰 오차가 없는 연대 설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사용시기는 자료의 절대빈곤으로 알 수 없지만 남부지방에서 그 사용시기가 대체로 3~4세기대까지 이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출현 이후 적어도 3~4세기까지는 사용되었다고 추측해 본다.
- 역자형:정릉사지(定陵寺址) 출토품 1점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 형식의 철촉은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원삼국시기 및 삼국시대 전기간을 통하여 사용되었던 점이 확실시 된다. 고구려에서는 단지 정릉사지 출토품 1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시기의 추정이 어렵지만 남부지방과 사용시기상 큰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 유연형:이 형식 철촉의 초출시기(初出時期)를 밝히는데 적절한 유적은 철기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유적으로 평가되는 노남리 남파동 윗문화층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 윗

11) 註 3),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1)> 17쪽.

12) 駒田和愛<樂浪銅鏃考> 《中國考古學論叢》 慶友社, 1974, 48쪽.

13) 註 7), <삼국사기의 활과 화살> 15-16쪽.

14) 金性泰<韓半島東南部地域出土 鐵鏃의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第10輯, 1992, 179~184쪽.

문화층에서 출토된 철촉의 사용시기도 고구려 초기로 일단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출토지가 알려진 유물중에서 4~5세기대의 벽화무덤이나 적석총출토품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4~5세기대에 성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4세기이후에는 길이에 변화가 있어 이전의 단경유엽형에서 장경유엽형으로 점차 변화하였고 5세기 중엽이후에는 서울 구의동 유적출토품과 같이 그 길이가 23~25cm 정도까지나 길어지고 촉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더욱 세장하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 착두형:착두형철촉은 고구려 전기간(全期間)을 통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4세기 이전의 유적으로 보고된 로남리 남파동 104호분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철촉은 형태상 어느정도 발전한 형태이다. 그리고 장성리산자갈들각담무덤도 들각담무덤중에서도 비교적 후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 형식의 사용개시는 고구려 초기(早期)로 볼수는 없다. 그보다는 다소 늦은 2~3세기경이라 잠정·편년되고 있다.

한편 이 형식의 철촉은 4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형식의 대표적인 철촉이자 고구려 철촉의 대표적인 도끼날형도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촉의 길이도 이때부터 대형화되기 시작하여 15cm이상을 넘는 긴 철촉이 4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익형:통구(通溝) 159호분과 우산하(禹山下) 41호분에서 출토되어 현재의 자료로서는 3~5세기경 사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삼익형철촉의 계통이 청동기 시대의 북방 청동유물인 점에 미루어 보아 그 사용시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기원전후부터 4세기시기까지의 유적으로 편년되고 있는 장성리산자갈들각담무덤과 국내성에서 출토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후기단실묘인 동명왕릉부근 12호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형식은 철촉은 2~3세기경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고구려후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엽형(廣葉形):통구195호분, 나통산성(羅通山城), 이수원유지(梨樹園遺址), 노남리 남파동 2호주거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광엽형(廣葉形)철촉의 개시문제와 관련하여 노남리 남파동 2호주거지의 연대가 중요한데 무경형(無莖形)철촉의 검토시 살핀 바와 같이 노남리 남파동 2호 주거지의 사용연대는 청동기시대말-초기철기시대 초기로 편년되고 있다. 즉 철기의 사용과 더불어 만들어진 철촉형식이 이 광엽형(廣葉形)과 무경형(無莖形)이라 하겠다. 이런 사실은 이 철촉의 촉두중앙에 뚫려져 있는 대칭하고 있는 한쌍의 구멍으로 잘 증명된다. 왜냐하면 이런 촉두의 구멍은 화살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다른 지역에서는 철기시대 초기의 무경형철촉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통산성은 조사와 발굴결과, 중국 위진 남북조시대에 해당되는 고구려중기에 처음 건립되어 요(遼)·금(金) 양대(兩大)에 걸쳐 계속 사용된 유적으로 보고되었다. 과수원자남유적지(果樹園子南遺蹟址)라고도 불리워지는 이수원유지는 출토된 와당명문(瓦當銘文)에 의해 그 건축연대가 4세기의 40년대 말기일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렇듯이 광엽형(廣葉形)은 고구려초기로부터 후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모(矛)

1) 계통

고구려 창(槍)의 계통은 우선 4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구려는 기병중심(騎兵中心)의 전투에서 중무장과 경무장한 보병(步兵)이 혼합된 보기전투(步騎戰鬪)로 전투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건국초기부터 3세기까지의 철모는 중국 한 대의 철창과는 어떤 연계성을 지니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대 창(槍)의 기본적인 특징과 고구려 창(槍)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4세기이후의 창(槍)은 중무장(重武裝) 기병(騎兵)이 사용한 양날창(雙刃槍)의 등장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양날창의 사용은 북방 기마민족이 증원으로 진출한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기마민족인 북조정권이 증원으로 진출하면서 전투에서 장창인 양날창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양상도 일변하여 기마전투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양인창(兩刃槍)이 그 계통을 중국 북조의 창(槍)에 두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게 한다.

2) 연대

고구려 철모(鐵矛)는 많은 숫자가 건물지나 산성등에서 출토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수습유물이 많아 편년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철모의 출토가 확인된 무덤들은 대부분 중, 후기에 속하는 무덤들이고 그 숫자도 적어서 편년을 설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구려 초기단계의 유적에서 출토된 철모(鐵矛)들은 보고서에 도면이 실려 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고구려에서 철모(鐵矛)의 사용은 중·후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철모(鐵矛)를 사용하였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해 있던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기원전에 이미 철모(鐵矛)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도 철모(鐵矛)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벽화자료와 실물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4세기에는 이미 철촉이 널리 사용되었고 크기도 소형에서 대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창머리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또한 기능도 보병용과 기병용으로 나누어져 사용되었다.

3) 사용

전주농은 일반적인 전투용 이외에도 종교적 의미를 지닌 창(槍)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사신총 벽화중의 창(槍)을 인용하고 있다.¹⁵⁾ 그는 “이 창(槍)은 이미 무기로서의 의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그 밑에 보이는 잔재적 형태와 긴 자루에 의해서 그것은 종교적 기물로서 창(槍)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것은 날으는 학을 탄 선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고구려문화》에서는 창(槍)대의 길이에 따라 짧은 것과 긴 것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짧은창(短槍)은 모두 보병(步兵)이 가졌으며 긴창(長槍)은 주로 기병(騎兵)이 가졌다고 보고 있다.¹⁶⁾

15) 註 3), <고구려기기의 무기와 무장(1)> 24쪽.

16) 註 8), 《고구려문화》 91쪽.

이상의 연구결과는 고고학적 자료와 크게 어긋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로 파악된다. 위의 논의에서 살핀 바와 연결시켜 정리해 볼 때, 고구려에서 창은 전투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단모(短矛)는 투창용으로, 중모(中矛)는 보병용으로, 장모(長矛)는 기병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전투용 이외에도 행렬중에 주인공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호위용으로 지녔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와 함께 무덤문을 지키는 문지기나 무덤속의 선인들이 들고 있기도 하여 종교적, 의례적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렵시에도 사용되어 큰 짐승을 상대로 던져 큰 타격을 입히는데에도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에서 창(槍)의 사용은 매우 광범위하였고 또 실제적(實際的)으로나 정신적(精神的)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6. 극(戟)

고구려의 유적에서 극(戟)은 실물자료로서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고, 단지 안악3호분, 동명왕릉부근 1호분의 그림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극에 대한 논의는 앞의 창(槍)에서의 고찰순서나 고찰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우선 고구려에서 극(戟)의 사용을 보여주는 안악3호분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함께 극(戟)의 사용이 언급된 주서(周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안악3호분에 묻힌 인물의 국적(國籍)이나 신분(身分)에 대한 논의는 한국 고고학에서 매우 치열한 논쟁거리이고, 또 그만큼 고구려벽화고분의 기원문제등 한국고대 문화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관건(關鍵)이 되는 논쟁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런 논쟁들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안악 3호분의 피장자가 누구이든지 주인공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즉 행렬도(行列圖)의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은 중국(中國)에서 귀화(歸化)한 동수(冬壽)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행렬도중의 주인공이 동수(冬壽)이든 그 피장자가 동수(冬壽)이든, 그를 따르는 군인중에는 중국에서 같이 귀화하거나 그를 따라 온 중국 출신(中國出身) 무사(武士)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 주인공이 북한학자들이 주장하는 고구려의 미천왕(美川王)이거나 아니면 고국원왕(故國原王)이더라도 동수(冬壽)가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호위(護衛)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어쨌든 동수라는 인물은 무덤의 피장자이거나 아니면 무덤을 지키는 벽화에 묘사될만큼 피장자의 신분보호를 담당하였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안악3호분의 행렬도 중에 중국고대병기(中國古代兵器)의 가장 표시적인 무기인 극(戟)이 확인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안악3호분의 극(戟)을 고구려의 무사가 사용한 고구려의 무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안악3호분의 무덤구조와 그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볼 때, 벽화에 그려진 무기들은 중국의 귀화인들이 중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접전병기(接戰兵器)로 그것이 평원용(平原用)이라는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즉 한서(漢書)의 "...양진상근(兩陣相近) 평지천초(平地淺草) 가전가후(可前可後) 차장극지지(此長戟之地) 검순(劍楯) 삼부당일(三不當一)..."이라는 기록¹⁷⁾이 시사하듯이 극(戟)의 사용은 평지(平地)에서

17) 《漢書》의 爰盎晁錯列傳.

효력을 발휘함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평지(平地)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극(戟)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이 많은 지역, 특히 산악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고구려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이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극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판단된다.

주서(周書)의 기록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주서의 사료적 성격을 살펴보면, 그 현행본은 북사(北史)로부터 망실된 것을 보철(補綴)한 책으로 보철(補綴)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¹⁸⁾ 그런데 이 주서의 고구려병기와 관련된 부분을 북사(北史)는 “고구려(高句麗) 병기(兵器)...여중국노동(與中國略同)...”라고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주서의 편찬자(編纂者)는 북사(北史)의 기사를 참고하면서 고구려의 병기가 중국과 대략 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중국의 대표적인 병기들을 예로 들어 고구려의 병기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고구려의 무기가 아닌 극(戟)이 고구려의 무기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주서(周書)의 기록을 믿고 고구려에서 극(戟)이 무기로써 사용되었다고 보아서는 안되겠다.

7. 노(弩)

노(弩)에 대한 고고역사학적 자료는 덕흥리 벽화무덤¹⁹⁾ 속의 “계현령이 쇠뇌를 들어 올렸다(소현령□현노(薊縣令□軒弩))”는 벽화내용과 10군대의 문헌기록속에서 확인되고, 이에 비해 실물자료로서 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실물자료가 한 점도 확인된 바 없는 노(弩)가 벽화의 묵서(墨書)에서나, 아니면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구려에서 노(弩)의 사용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덕흥리벽화고분속의 묵서명이 보이는 노(弩)에 대한 검토는 극(戟)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덕흥리벽화고분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라 노의 성격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덕흥리벽화고분의 피장자에 대하여, 북한학계는 진(鎭)이라는 인물이 고구려의 신도현도향중감리(평안북도 운전군 삼광리)태생으로서 고구려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덕흥리에 묻힌 고구려의 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사서에 고구려의 유주진출기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鎭)이라는 인물은 중국의 망명객으로서 강서일대의 중국인들을 정치세력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고구려의 귀족이든지 아니면 중국의 망명객이든 당시 4세기중반경에 고구려에는 중국대륙의 정세변화에 따라 고구려로 귀화한 중국의 세력가들이 있었던 점과 고구려가 중국 동북방에 진출이 활발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행렬도중의 인물에는 중국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특히 행렬도 중에 노를 들었다고 하는 계현령이란 인물은 글자 그대로 중국 유주(幽州)소재지인 계현의 현령(縣令)으로 그가 중국인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국 벽화속에 유일하게 보인 노(弩)는 중국인이 들고 있는 사실만으로 노가 고구려의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휴대가능(携帶可能)한 노(弩)가 중국의 표식적인 원거리무기인 점과, 또 평원전투용(平原戰鬪用) 무기로 마차(馬車)등에

18)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편 《高句麗史研究Ⅱ(史料篇)》延世大學校 出版部, 1988, 1127쪽을 참조.

19) 高寬敏역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講談社, 1986.

의탁하여 사용되는 점, 그리고 중국의 사서 가운데에서도 고구려의 무기종류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사서가 대부분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물자료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무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삼국사기 등 문헌에 보이는 노(弩)의 존재를 시사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헌속의 노(弩)란 수성용(守城用)의 노(弩)를 말하지 않나 생각된다. 위의 견해는 노의 종류중에 성(城)위에 설치하여 발사하게 만든 수성용의 노(弩)가 있었던 점, 고구려가 대수(對隋), 대당(對唐) 전투에서 보인 수성전투의 탁월한 능력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뛰어난 수성무기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하는 점, 그리고 신라(新羅)에 성(城)위에 설치하는 노(弩)가 있었던 사실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특히 당군(唐軍)이 백암성(白岩城)을 공격했을 때 공격초에 당장군(唐將軍) 이사마(李思摩)가 성중(城中)에서 쏜 노시(弩矢)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태종이 친히 그 상처의 독혈을 빨아 주어 제장(諸將)에게 감격을 주었다는 자치통감(資治通鑑) 권(卷) 197 당기(唐紀) 태종정관(太宗貞觀) 18년(年)의 기사는 고구려 수성용 노의 존재와 그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수성용 노(弩)가 사용된 시기는 수(隋)가 진(陳)을 멸하고 중원을 통일하였을 때, 고구려가 그 정보를 듣고 방수(防守)의 책(策)을 강구하면서 이에 앞서서 비밀리에 재물(財物)로서 중국인의 노수(弩手)를 매수하여 병기를 제조했다는 수서(隋書) 권(卷) 81 열전(列傳) 제(第) 46 동이(東夷) 고려조(高麗條)의 “석년(昔年) 잠행재화(潛行財貨) 이동소인(利動小人) 사장노수(私將弩手) 도찬하국(逃竄下國) 기비수리병기(豈非修理兵器) 의욕부장(意欲不藏)”이란 기사속에 잘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위의 기사로 보아 고구려 노(弩)는 그 계통을 바로 중국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노(弩)가 중국의 주대(周代)에 만들어져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한대(漢代)에 이르러 흉노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등, 중국의 전형적인 무기인 사실²⁰⁾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된 노는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서 수성용무기로써 큰 위력을 발휘하고 또 제작기술도 고도화되어 나중에는 중국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자 신라의 기술자를 불러들여 노를 만들게 할 정도가 된다. 한편 백제에서도 수성을 위한 노를 제작,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부소산성출토 대형(大型)철촉의 존재²¹⁾로 알 수 있다.

8. 도끼

도끼에 대한 연구는 그 사용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도끼는 자루의 장착 방법에 따라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형식은 날의 방향과 자루의 방향이 일치되겠끔 공부(자루구멍)을 만든 형태이고, 둘째 형식은 날의 방향과 자루의 방향이 직교되게 공부를 만든 형태이다. 한편 도끼는 전투용, 의례용, 벌목용, 굴착용, 공구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첫째 형식의 도끼들은 주로 전투용이나 의

20) 金性泰<漢代 武器에 대한 一研究> 《五松李公範教授停年退任紀念東洋史論叢》刊行委員會, 1993, 581~582쪽.

21)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형의 철촉은 수성용 弩에 장착하여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크기와 무게로 볼 때 도저히 보통의 활로서는 발사가 어려운 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도록》 1993. 53쪽의 사진 참조.

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며, 둘째 형식의 것들은 기타 벌목, 굴착, 공구 등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는 첫째 형식의 것들이 전투용, 의례용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가능성은 우선 첫째 형식의 도끼가 고구려 벽화나 중국 화상석묘의 그림중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곧 행렬도중의 호위병사가 들고 있거나, 사람의 목을 치는데 사용되거나, 방패를 든 무사가 들고 휘두르는 등 모두 무기로 표현되어 있다.²²⁾

9. 종합적 고찰

1) 계통

고구려무기의 계통은 크게 1.중국의 영향, 2.북방유목민의 영향, 3.고조선무기의 계승, 4.철기의 사용에 따른 창안품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 계통을 논의할 때에는 형태적 유사성과 역사적 계기에 의해 명확히 그 계통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태를 통한 연구자의 인상(印象)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는 자료상의 한계 때문에 계통 자체를 밝혀낼 수 없는 예도 많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밝힐 고구려 무기의 계통도 마찬가지로 무기의 종류나 형식에 따라 그 계통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통의 추측조차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가. 중국의 영향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위시한 철모(鐵矛), 도끼 들과 같은 고구려 무기는 중국 무기의 절대적인 영향에서 생겨났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고구려는 중국 무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오히려 북방 유목민족이나 고조선 무기의 계승을 통해 그들 고유의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우선 칼에 있어서, 장식성이 강하고 옥구(玉具)를 사용하는 중국적인 요소가 고구려 칼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철모(鐵矛)에 있어서도 고구려의 창은 중국창의 기본적 특징들과는 다른 형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궁(角弓)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활과 화살대, 화살촉 등은 거의 중국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중국의 전형적인 무기인 극이나 휴대용 노와 같은 무기는 고구려의 무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자료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단,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수성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그 기술을 몰래 훔쳐 만든 수성용 노(弩)만이 중국에 그 계통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칼에 보이는 환두가 중국의 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북사(北史)와 수서(隋書)등의 <병기(兵器) 여중국략동(與中國略同)>이라는 기사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고구려무기가 증원의 무기와 연계성을 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형적 차이에 따른 전투양상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원전투에서 전차에 의탁하여 사용하거나 평지에서 기마병을 상대로 발사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가 노(弩)이다. 그리고 평지전투에서 찌르고 찌는 두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극(戟)이다. 그런 무기들이 산악국가인 고구려에서는 크게 유용하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고구려의 무기속에 노(弩)나 극(戟)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 한편 칼에 있어서 단도(短刀)가 주류를 이루

22) 중국 화상석묘의 자료는 孫機<武備 I>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出版社, 1991, 圖版 33 참조.

게 되고 활도 단궁(短弓)위주인 점도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북방 유목민족 무기의 영향.

고구려 활은 0000000무엇보다도 북방 기마민족이 사용하였던 단궁(短弓)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고구려의 전쟁수행 방법은 산악전투와 기마전으로 요약되는데, 그러한 전투양상에 맞는 무기로 고안된 것이 단도(短刀)와 단궁(短弓)이었음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철촉 중에 북방민족의 전형적인 무기인 착두형 철촉이나 삼익촉 명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 고조선무기의 계승

고구려 무기중에는 고조선 무기 곧 청동기시대의 무기를 계승하였다고 판단되는 무기들이 보인다. 우선 각저총 현실 북벽의 주인공생활도 중의 검으로 판단되는 칼이 가장 주목되는데 이는 세형 동검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틀림없이 판단된다.

단지 한점의 예에 불과하지만 각저총의 축조연대가 4세기말에서 5세기초로 편년되고 있는 사실로서도 고구려 건국이후 장기간 동안 고구려에 세형동검의 형태를 계승한 칼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철촉 중에서 이전단계의 골족(骨鏃)이나 석족(石鏃)의 형태를 계승하여 발전한 무경형철촉이나 유연형철촉등은 고조선무기의 계승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라. 철기의 사용에 다른 창안품

고구려의 철모(鐵矛)는 일단 그 형태적인 특성으로 볼 때 중원지방의 창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단계의 동모(銅矛)와도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단 철제무기제작과 더불어, 찌르기 위한 기능을 가진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형태로 파악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던 철제창의 형태나 이전 단계의 동모의 형태를 당연히 참고하였겠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중국 창이나 동모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철족(鐵鏃)의 형식중 광엽형(廣葉形)이나 도검형은 동촉이나 중국의 철촉에서 그런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철촉으로, 이 역시 철기의 본격적인 제작과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무기는 그 계통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구려 무기가 중국 무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는 중국학자나 과거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하겠다. 고구려 무기에서 중국 무기의 영향은 비교적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고구려의 주된 전투무기인 활과 창은 중국 무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한학자들의 고조선 무기의 계승으로만 고구려무기를 파악하려는 시도 역시 재고되어야 하겠다. 고구려 무기가 청동무기와 마제석기로 만든 무기들을 전적으로 모방·계승하여 만들어졌다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구려 무기의 계통은 단일 계통론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계통을 찾아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실상과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고구려무기의 발전단계

앞장에서 고구려무기를 각 무기별로 나누어서 그 사용연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고구려 무기의 발전 과정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절대연대의 편년틀안에서 각 세기별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무기의 연대설정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고구려 유적 특히 묘제의 편년설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출토유물 자체도 세밀한 연

대추정을 가능케 할만큼 풍부하게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물생활도가 벽화의 주제로 그려진 4~5세기경의 다실묘와 이실묘단계의 벽화무덤에는 무기의 사용에 관한 생생한 그림들이 많으나 도굴 등의 피해로 실물자료가 부족한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기원전후부터 벽화고분출현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는 실물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나 벽화와 같은 사생자료는 없다. 한편 벽화고분이지만 6세기중반이후 발생한 사신총을 주로 그린 단실묘축조단계에서는 벽화내용중에 생활풍속도가 거의 그려지지 않아서 무기 사용의 실례를 알기 어렵게 한다.

이상과 같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고구려 무기의 편년은 그 대략적인 발전단계를 정하여 발전·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고구려 무기의 발전은 고구려 정권의 대내외적인 발전, 제철생산기술의 발전, 그리고 고구려가 치른 대외전쟁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정리하여 여기서는 고구려 무기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겠다.

1단계:형성기(形成期), 기원전후부터 3세기까지

초기단계인 동명(東明), 유리(瑠璃), 대무신왕(大武神王)대에 검이 여전히 실용적, 의기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미 기원전후의 시기에 외날칼인 도(刀)가 등장하여 주된 베는 무기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도(刀)에는 무환두도와 더불어 환두대도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활은 이미 주변에서 고구려가 맥궁(狍弓)이라고 하는 좋은 활을 생산한다고 일컬을 정도로 이단계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활에 호시라고 하는 뛰어난 화살을 장전하여 쏘았던 사실을 문헌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호시에 꼽혔던 족(鏃)은 주로 무경촉, 단경유엽, 소형(小型)의 광엽(廣葉)촉, 변형의 착두형등과 같은 길이가 10cm이하로 비교적 작고 무게도 적게 나가는 소형(小形)의 철촉을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화살과 족(鏃)을 지닌 이단계의 활을 그 사정거리가 대략 60cm정도였던 것으로 계산된다.

창은 이단계부터 이미 장창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신역곡인(臣亦谷人) 마노(麻蘆) 청이장모위도(請以長矛爲導)”라는 기사는 장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미 이 단계에 기마전이 성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기마용 창인 삭(稍)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단계 기마전의 실시는 동천왕대에 이미 철기(鐵騎) 5천(千)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마 전술에 의한 전투가 일상화 되어 있었고 전마(戰馬)에도 말갑옷을 입힐 정도로 기마전투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고구려의 무기체계는 이미 1단계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어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2단계:발전기(發展期), 기원후 4세기부터 6세기중반까지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도(刀)에는 삼엽환두라고 하는 특징적인 형태의 도가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이전 단계보다는 길이도 길어지고 기능도 다양해 진다.

활은 이 단계에 와서 더욱 그 위력이 강력해져 대성산성의 치와 치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활의 위력이 초기단계에 비해 거의 1.5배 이상이나 강력해져 대략 100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활들이 사용되었다. 이 단계에 활의 위력이 대단하였던 사실은 일본서기에서도 보이는데, 철적(鐵的)을 뚫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계

에 도끼날 모양의 착두형철촉이나 명적과 같은 북방 유망민족에 계통을 둔 인상적인 철촉이 사용되었고, 이와함께 철촉의 길이가 이전 단계보다 훨씬 길어져 15cm이상을 넘는 장경(長頸)의 철촉들이 나타났다.

창도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소형(小型), 중형(中型), 대형(大型)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크기가 다양해졌고, 아울러 고구려의 기본 전투가 여전히 창부대위주로 행해질 만큼 보편적이면도 중요한 무기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그림들이 전하는 생생한 전투장면이나 행렬도는 이 단계에 창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곧 바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던 고구려의 무기체계가 더욱 발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단계:확립기(確立期), 6세기후반부터 고구려 멸망까지

6세기후반 고구려의 서북부지역은 서쪽에서 북제(北齊)의 군사적, 외교적 압력을 받게 되고 또 신흥 들궤이 등장하여 몽고고원을 포함한 내륙아시아지역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580년 수나라가 건국하고 이어 4세기 이래 3백여년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후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추세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자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해 오던 고구려는 다가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비를 확충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고구려는 무기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새로운 무기의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단계는 공·수성용의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했던 시기로, 노의 사용이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검(劍)은 이 단계에서도 의기적, 상징적 기능을 지니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연개소문이 다섯자루의 도(刀)를 차고 다녔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도(刀)의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졌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술적(戰術的)으로 볼 때에는 청야수성전술(靑野守城戰術)이 절정기에 달한 시기도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10. 맺 음 말

이상에서 무기별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구려 무기의 일반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려의 무기에는 검(劍), 도(刀), 궁시(弓矢), 모(矛), 극(戟), 노(弩), 도끼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궁시(弓矢)와 모(矛)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무기였고 그 다음으로 휴대용, 호신용의 무기로서 도(刀)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리고 검, 극, 노, 도끼 등은 고구려 무기의 편제상 부수적인 무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검은 신분을 상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듯하고 도끼는 호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극과 노는 고구려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로 생각된다. 이상은 “편궁시도모(便弓矢刀矛)”라는 기사와 잘 부합된다.

2. 중국학자들은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중의 “명기여중국략동(兵器與中國略同)”이라는 기사와 주서(周書)나 책부원귀(冊府元龜)의 “병기유갑노궁전극사모연(兵器有甲弩弓箭戟稍矛鎗)” 등의 기사를 근거로 고구려의 병기체계가 중국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원의 강한 영향아래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고구려 무기는 결코 중국

의 강한 영향이나 모방에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궁(弓)과 기창(騎槍)을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편 무기중에서 노와 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노와 극을 기본으로 한 중국의 무기체계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양국사이의 무기체계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양국사이의 무기체계에서 뚜렷한 차이점은 지형적인 여건에서 생겨났다고 판단된다.

3. 각 무기별로 고찰해 볼 때 고구려의 무기는 그 형태의 다양성을 지적할 수 있다. 도(刀), 화살촉, 모(矛) 등의 형태가 극히 다양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형식내에서도 개개의 유물마다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예가 많다. 즉 형태에 있어서 제일성(齊一性)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는 고구려 이외의 신라, 백제, 가야의 무기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강한 제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